

2015 / 11 / 11 (WED)

인터넷 / 소프트웨어 / IT서비스 이경일 6099-8505 shinjohyub@barofn.com

업종별 Comment

전일 국내 인터넷/SW 섹터는 2%대 하락세.
美 금리인상 가능성이 고조된 가운데 OE
CD가 글로벌 성장전망을 하향조정하며 투
심 위축.

대부분의 종목들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계
임주가 3.9%, 소프트웨어 업종이 3.7% 하
락하며 가장 부진.

수급측면에서는 기관의 매도세로 KG이니
시스, 선데이토즈, 컴투스, KG모빌리언스,
위메이드, 아프리카TV, NHN엔터테인먼트
약세.

종목별로는 소프트맥스엔드림과 '창세기전'
의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개발 공동계약
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조이시티가 4.0% 상
승 마감.

외국인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NAVER	98 억	SK	-82 억
다우기술	16 억	컴투스	-60 억
한국정보인증	9 억	카카오	-23 억
유비케어	8 억	엔씨소프트	-19 억
NHN엔터	8 억	네오위즈게임	-10 억
이티렉	6 억	삼성에스디에	-9 억
KG이니시스	5 억	더존비즈온	-9 억
민앤지	4 억	선데이토즈	-8 억
액토즈소프트	4 억	코나아이	-7 억
웹젠	4 억	한국전자인증	-6 억
비트컴퓨터	4 억	위메이드	-3 억
아프리카TV	4 억	투비소프트	-3 억
라운시큐어	4 억	처음앤씨	-2 억
SK컴즈	3 억	슈프리마	-2 억
엡게임	3 억	소리바다	-1 억

기관 매매동향

종목	순매수	종목	순매수
엔씨소프트	45 억	NAVER	-125 억
게임빌	7 억	SK	-81 억
네오위즈게임	4 억	카카오	-65 억
더존비즈온	3 억	컴투스	-34 억
웹젠	2 억	NHN엔터	-32 억
에스24	2 억	위메이드	-21 억
아이티센	1 억	KG이니시스	-15 억
KT뮤직	1 억	삼성에스디에	-13 억
파티게임즈	1 억	다우기술	-12 억
액토즈소프트	1 억	코나아이	-11 억
한솔인티큐브	1 억	아프리카TV	-9 억
다나와	1 억	선데이토즈	-7 억
케이아이엔엑	0 억	민앤지	-7 억
골프존	0 억	KG모빌리언	-5 억
크레듀	0 억	MDS테크	-5 억

국내 인터넷/소프트웨어 Sector

Index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KRX IT	1,281.16	-1.2%	-14.2%	-496 억	-237 억
(코) 인터넷	18,592.28	-2.5%	-2.5%	-22 억	-70 억
(코) IT S/W&SVC	2,011.99	-3.6%	0.6%	-25 억	-190 억
(코) 소프트웨어	284.02	-3.6%	15.8%	50 억	-62 억

인터넷

종목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NAVER	618,000	-2.5%	-13.2%	98 억	-125 억
카카오	111,700	-2.9%	-9.6%	-23 억	-65 억
한국사이버결제	26,750	-5.8%	0.2%	1 억	-1 억
KG이니시스	14,550	-9.9%	-18.7%	5 억	-15 억
KG모빌리언스	12,450	-9.1%	-14.4%	2 억	-5 억
사람인에이치알	19,900	-4.1%	77.7%	0 억	-5 억
KTH	7,900	-4.6%	3.3%	0 억	-4 억
아프리카TV	22,300	-4.5%	-16.6%	4 억	-9 억
SK컴즈	6,320	-0.3%	-5.0%	3 억	0 억
KT뮤직	4,495	-6.9%	-16.6%	0 억	1 억
다날	9,220	-4.3%	13.8%	2 억	-
에스24	9,790	-2.6%	40.5%	1 억	2 억

IT서비스

종목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삼성에스디에스	250,000	-1.0%	-14.8%	-9 억	-13 억
SK	251,500	-1.9%	17.8%	-82 억	-81 억
다우기술	21,800	0.5%	82.4%	16 억	-12 억
포스코 ICT	4,700	-2.2%	-11.3%	0 억	0 억
신세계 I&C	108,500	-4.0%	-3.1%	0 억	-1 억
동부	5,200	-6.1%	107.2%	0 억	0 억

게임

종목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엔씨소프트	208,000	-1.4%	14.3%	-19 억	45 억
EA	104,900	-9.2%	-13.0%	-60 억	-34 억
NHN엔터테인먼트	53,800	-4.3%	-36.4%	8 억	-32 억
웹젠	28,150	-4.9%	-3.1%	4 억	2 억
위메이드	36,750	-7.1%	-2.8%	-3 억	-21 억
선데이토즈	11,750	-9.6%	-31.7%	-8 억	-7 억
액토즈소프트	33,050	-9.1%	-1.3%	4 억	1 억
게임빌	75,000	-4.8%	-37.9%	0 억	7 억
네오위즈게임즈	18,950	-3.3%	-16.7%	-10 억	4 억
넥슨지티	13,850	-0.7%	8.6%	1 억	0 억
데브시스템즈	25,650	-5.7%	-46.3%	-1 억	0 억
조이시티	27,000	4.0%	33.7%	2 억	-3 억
파티게임즈	19,150	-0.3%	-26.5%	-1 억	1 억
조이맥스	15,800	-10.0%	-42.1%	2 억	0 억
한빛소프트	7,330	-1.1%	26.6%	0 억	-
와이드온라인	6,760	4.6%	46.3%	1 억	0 억

소프트웨어

종목	close	1D	YTD	외국인	기관
코나아이	34,050	-9.2%	1.0%	-7 억	-11 억
더존비즈온	21,000	-2.6%	125.8%	-9 억	3 억
한글과컴퓨터	19,650	-1.8%	-2.7%	3 억	-5 억
골프존	90,200	-1.3%	257.2%	1 억	0 억
안랩	39,850	-2.3%	10.7%	1 억	0 억
한국정보인증	12,050	-2.8%	246.8%	9 억	0 억
슈프리마	18,150	-4.2%	-28.7%	-2 억	-2 억
갤럭시아컴즈	5,630	-5.1%	107.7%	0 억	0 억
지트리비엔티	11,700	-2.9%	239.1%	0 억	-2 억
MDS테크	22,000	-2.0%	6.3%	2 억	-5 억
오상자이엘	10,400	-4.1%	-21.8%	0 억	-
인피니트헬스케어	9,440	-5.2%	30.4%	2 억	0 억
케이사인	2,820	-6.0%	14.6%	0 억	-

해외 Internet/Software Sector

Index	close	1D	YTD
MSCI IT	152.44	-0.9%	3.7%
MSCI Internet	195.32	0.4%	27.9%
MSCI IT Services	124.74	0.3%	5.9%
MSCI Software	180.03	-0.7%	10.0%

Internet

종목	close	1D	YTD
Google	758.26	0.5%	42.9%
Facebook	107.91	1.3%	38.3%
Tencent	150.40	-1.1%	33.7%
Baidu	196.99	1.5%	-13.6%
Yahoo	33.99	0.9%	-32.7%
LinkedIn	255.54	0.4%	11.2%
Twitter	27.05	-0.1%	-24.6%
Weibo	17.60	-1.2%	23.6%
SINA	48.56	-5.2%	29.8%

IT Services

종목	close	1D	YTD
IBM	135.47	0.1%	-15.6%
TCS	2,458.15	-0.5%	-3.9%
Accenture	105.07	0.2%	17.6%
HP	14.12	1.8%	-64.8%
Infosys	1,103.85	-2.7%	11.9%
Wipro	556.05	-0.7%	0.2%
NTT Data	5,870	-0.5%	30.0%
Fujitsu	600.10	-0.7%	-6.9%
CSC	67.04	-0.6%	6.3%

Games

종목	close	1D	YTD
Nintendo	20,400	-2.0%	61.8%
EA	70.83	-0.2%	50.6%
Blizzard	33.86	-0.6%	68.0%
NEXON	1,671	-2.6%	48.5%
NAMCO	2,852	1.2%	11.2%
King	17.78	-1.3%	15.8%
Konami	2,903	-0.1%	30.8%
Square Enix	3,065	-1.9%	22.2%
GungHo	392	-2.0%	-11.1%
DeNA	1,946	1.6%	34.6%
Sega	1,311	1.2%	-15.7%
Take-Two	32.92	-0.2%	17.4%
Zynga	2.52	0.0%	-5.3%
Ubisoft	25.79	-4.4%	70.0%
Gree	571	-2.1%	-21.1%
Changyou	21.03	-2.2%	-23.1%

Software

종목	close	1D	YTD
Microsoft	53.51	-1.2%	15.2%
Oracle	39.92	-0.4%	-11.2%
SAP	78.30	-0.7%	12.4%
EMC	25.25	-2.2%	-15.1%
Salesforce	78.25	0.0%	31.9%
Adobe	90.28	0.5%	24.2%
Vmware	60.44	1.6%	-26.8%
Intuit	98.88	1.4%	7.3%
Symantec	19.97	-0.7%	-22.2%
CA	27.06	0.0%	-11.1%
Citrix	81.09	0.8%	27.1%
Autodesk	63.36	-0.2%	5.5%
Synopsys	51.40	0.4%	18.2%

인터넷 Internet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카카오	-2.9%	최근이슈

News & Issue

'카카오톡 신화' 이석우 전 대표, 전격 사의 왜?

'카카오톡' 신화를 만들었던 이석우 전 대표가 4년간 몸담았던 카카오를 떠나기로 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는 이날 경기도 판교 사무실을 찾아 직원들에게 퇴사 인사를 전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월 임지훈 현 대표에게 자리를 물려주겠다고 최세훈 공동대표와 함께 대표직에서 내려왔다. 이후 최세훈 전 대표는 CFO 역할을 맡았지만, 이 전 대표는 특정 영역을 담당하지 않고 경영 자문역만 맡아왔다. 이 전 대표는 사무실 역시 경기도 판교가 아니라 서울 한남동 옛 다음 커뮤니케이션 사무실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1년 카카오에 입사한 후 김범수 의장과 함께 카카오를 이끌며 카카오톡 신화를 만든 인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에는 다음과의 합병을 이끌어 냈고, 김범수 의장과 함께 카카오 주요 사안을 결정해왔다.

이번 퇴사 결정은 지난해 합병 이후 지난 1년간 합병사 대표로서 많은 일을 겪어오면서 쌓인 피로감과 신입 대표에 대한 배려 차원 등에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불거진 '카카오톡 검열' 사건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최근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수난을 겪기도 했다.

이와 관련 회사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최근까지 안식휴가를 보냈다"며 "퇴사 의사를 밝혔고, 정확한 퇴사 시기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IT서비스 IT Services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신세계 I&C	-4.0%	최근이슈

News & Issue

넥슨, 신세계I&C와 야외 팝업스토어 개점

넥슨은 신세계아이앤씨와 마케팅 제휴를 맺고 인기 게임 2종을 활용한 상품과 게임 아이템이 담긴 일러스트 카드를 지스타 2015 야외 부스에서 특별 판매한다고 10일 밝혔다.

상품은 '사이퍼즈' 캐릭터 일러스트가 그려진 머그컵, 후드티셔츠, '던전앤파이터' DVD, 캐릭터 피규어 등 게임별 각 IP상품과 게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의 쿠폰 번호가 담긴 고급 일러스트 카드로 구성됐다.

판매는 지스타 넥슨 야외부스에 직접 방문한 관람객만을 대상으로 13일과 14일 이틀간 오후 2시에 5시 사이에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넥슨 지스타 특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넥슨 신규사업팀 조정현 팀장은 "신세계 그룹 IT서비스 기업인 신세계아이앤씨와 함께 이색적인 마케팅 시도를 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제휴를 시작으로 오프라인 판매 유통망 확대를 함께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게임 Game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조이시티	4.0%	최근이슈

News & Issue

조이시티-소프트맥스-엔드림, '창세기전' 모바일화 공동개발

조이시티(대표 조성원)는 소프트맥스엔드림과 '창세기전'의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개발 공동계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조이시티를 중심으로 엔드림 김태곤 상무가 게임 개발 총괄을, 소프트맥스가 IP 및 소스 공급을 담당하는 구조로 성사됐다. 조이시티는 삼사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내년 하반기 중 출시 예정인 모바일 게임 '창세기전'의 글로벌 서비스 및 홍보, 마케팅 등 서비스 제반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창세기전' 시리즈는 탄탄한 시나리오와 고유한 시스템, 웅장한 BGM 등 완성도 높은 콘텐츠와 게임성이 특징인 PC 패키지 게임이다. 두터운 고정 이용자층을 기반으로 국내외 게임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IP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엔드림 김태곤 상무는 "한국을 대표하는 1세대 토종 게임 '창세기전' 시리즈의 IP로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게 되어 기쁘다"며 "그 동안 다수의 흥행작들을 개발하며 쌓은 경험과 성공 노하우를 총망라해 글로벌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대작 RPG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Region	종목	1D	Category
국내	Industry		최근이슈

넷마블, 엔씨 제쳤다, 3분기 매출 2,818억, 영업이익 567억원

넷마블게임즈가 2015년 3분기(7~9월) 매출 2818억원, 영업이익 567억원 등 분기 기준 최대 규모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85%, 전분기보다 16%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82%, 전분기보다 9% 늘었다.

이는 국내 게임 상장사 기준 업계 1위인 엔씨소프트를 제친 실적이다. 지난 3분기 엔씨소프트는 매출 1957억원, 영업이익 50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8%, 38% 감소했다. 엔씨소프트는 4분기 실적 개선을 예고, 넷마블을 다시 앞설지 주목된다.

넷마블 측은 지난 3분기 실적에 대해 “‘레이븐’, ‘세븐나이트’, ‘모두의마블’ 등 넷마블의 대표 장수게임의 인기가 지속된 것은 물론 지난 9월 출시한 모바일 슈팅 게임 ‘백발백중’이 흥행에 성공하면서 전 분기에 이어 견조한 실적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4분기 전망에 대해선 “최근 출시한 ‘이데아’, ‘길드오브아너’가 초반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4분기에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다양한 장르의 신작들을 출시 예정이어서 지속적으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넷마블은 모바일게임 사업 집중과 글로벌 사업 확대에 따른 공격적 투자로 모바일 사업 비중은 90% 이상, 올해 해외 매출 비중은 약 25%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1월 11일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11월 11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11월 11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